

차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7기



삼보이야기(3)-법

우리는 법을 등불로 삼아야 하며, 자신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법을 등불로 삼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어떻게 법에 의지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 될 수 있는가? <대반열반경>에 이러한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르침이 나오고 있다. 이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의 시라 숲에 계시 때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즉 이 때 갑자기 사라쌍수에 꽃이 피어나 부처님께 떨어졌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된다.

“아난아, 너는 저 나무가 때 아닌 때에 꽃을 피워서 나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과 용과 귀신 등 8부중들이 허공에서 미묘한 꽃비를 내리면서 풍악을 울리게 된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너는 저 하늘 등 8부중이 나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았느냐?”

“예, 이미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에게 공양하며,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이는

가르쳐준 자비가 아니면 안 되기에 그분에 대한 연모의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을 억히 알고 받아들이지만 그 방법에서 사뭇 우리들의 상식을 벗어난다. 그것은 꽃, 향, 풍악 등의 물질이나 소리로 공양하지 말고, 계율을 지키고, 경전을 외우며, 경전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물질이나 입바른 아무나 찬탄이 아니다. 설사 말은 없을 지라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세상은 무상한 것이며, 무아인 것이며, 그래서 고뇌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현실이다. 현실은 늘 변하고, 어느 것도 고정된 실체를 지니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그래서 우리들은 불만과 고뇌에 사로잡히게 된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은 맑은 물처럼 담담해질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의지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절망하지도 않는다. 세상의 이치가 인연 따라 생멸을 거듭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우리들의 마음이나 일체의 사물이 예외될 수 없다. 그렇기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뿐이며, 그래서 세상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자비의 눈이

현실직시하는 慈觀능력 키워

평화로운 사회건설의 길잡이

반드시 꽃과 향, 풍악 등으로 할 필요가 없느니라. 계율을 정정히 지키고 경전을 읽고 외우며 법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공양하는 것이니라.”

이상은 부처님에 대한 찬양이 초목이나 팔부신중에 의해서도 행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대목은 당나라의 시인인 이태백의 “양인 대자산화개(兩人對山花開)”라는 시를 연상시킨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숲을 마시는 정경이 너무 아름다우므로 산에 있는 꽃조차 저절로 피어나 분위기를 돋운다는 의미인데 초목을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함께 호흡하고 어울리는 주제로 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 사고무친한 세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으며, 고독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살아가면서 슬하가 느끼게 되는 죽음보다 깊은 병이라는 절망의 늪을 헤치고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그분이

란 의미의 자안(慈眼) 또는 자비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의 자관(慈觀)이라 한다.

동시에 가르침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법도 무상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비를 논한다는 것은 토끼에게 꿀이 있는가 없는가를 논하는 것처럼 무의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남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견해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저속하며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세상에 진리를 인식하려는 마음 이외에는 영원한 진리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고집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서 반목과 논쟁이 사라지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데 한 걸음 다가서게 된다는 것이다. 마치 요즘의 한국사회를 빗댄 이야기 같지만 <경잡>이란 책에 나오는 말씀이다.

법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무익한 논쟁을 없애고 상대를 이해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다. 고집에 의한 절대주의가 아니라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상대주의적 시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불교학 박사>



혜정 스님

(법주사 회주)



◇최근 불교TV 무상사개원 및 사육이전 특별법회에서 대중법문을 하고 있는 혜정 스님.

항상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세요

오늘은 ‘인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 교리의 큰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을 들여야만 하겠습니다.

불교는 어느 신을 전제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요, 마음을 찾아서 깨쳐가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한 마디로 말해서 ‘마음’입니다. 이 마음 하나만을 주장하는

불교는 인강중심 마음의 종교

운명·숙명 산산히 때려부서

다시 창조하고 개조해 나가죠

종교가 불교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이다, 숙명이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운명과 숙명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요, 우리는 그 속에서 꼼짝달랴 못 하고 늘 거기에 구속받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만 되

는 운명적인 존재인가?

그러한 사상과 생각을 확 바꿔야 합니다. 운명론을 능히 부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교 교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져서 질질 끌려 다니고, 눈물을 흘리고,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자기 일생을 그와 같이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불교는 운명과 숙명을 끌어안고, 산산히 때려 부셔서 다시 창조하고, 또 개조하고 이렇게 해서 끊고 갑니다.

우리는 이 마음 하나로써 모든 것을 다 이룩할

기자가 본 혜정 스님

“내가 있는 속리산에는 미륵부처님이 계십니다. 메달 16일은 미륵재일이라 철야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법당에 가봤더니 그 모습이 가관이라.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서서 기도하는 사람, 벽에 기대 옆 주 돌리고 있는 사람, 책을 펼치고 있는 사람. 일제 기도하는 것인지 놀라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눈에서 불이 번쩍 나도록 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따위로 기도해서 뭘 성취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이야. 정상을 다해서 해도 이뤄질 듯 말 듯 한데...”

혜정 스님의 엄격한 수행 기풍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스님은 출가자들에게는 오직 견성성불을 위해 24시간 화두를 놓지 말라 이르고 신도들에게는 참선, 간경, 염불 등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정진할 것을 당부하신다. 그 어느 쪽이나 뼈를 깎고 피 눈물을 흘리는 간절함과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수행 기풍은 일상에서도 드러난다. 30여년 주석하고 계시는 법주사 사리각에는 지금도 전화가 없다. 그래서 스님을 만나려면 사리각이나 스님이 정하는 법문 장소를 찾거나 시방하고 있는 상좌 스님께 전화를 드려야만 겨우 약속을 잡을 수 있다. 아직도 법문을 위해 외출할 일이 생길 때는 혼자 걸망 하나 메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견성성불위해 24시간 화두 놓지말라”

산문 나설땐 시자없이 대중교통 이용

1933년 전라북도 정읍의 선비 집안에서 태어난 스님은 19살 때 수묵사로 출가했다. 1953년 초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1962-83년 1-8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1972년 중앙종회 부의장, 1977년 총무원장을 역임하셨다. 법주사 주지와 을주 소임을 거쳐 지금은 법주사 회주로 계신다.



◇혜정 스님은 불자들에게 참선, 주벽, 염불, 108배, 간경 등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꾸준히 할 것을 당부한다.

天一氣功

세계최초로 발명특허 받은 건강법

◆ 단계강의한국 : 국립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육군73사단, 삼성중화화학(주), 한국중공업의 다수

道家, 佛家에 비월리에 전해져온 신비의 氣 치료법 공개! 누구나 5박 6일이면 氣 치료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천일기공 연구회에서는 가정에서 자기 스스로 최후교정 운동을 하여 백병을 다스리는 건강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균성 질환을 제외한 모든 만성병은 100%가 골반, 척추의 변형으로 인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국민의 99%가 골반과 척추가 변형되어 있으며, 특히 자라는 청소년들의 골반, 척추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모든 만성 질환자의 경우 백가지의 치료법보다 먼저 골반, 척추를 바로 잡는 것이 병을 고치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천일기공 <정기10,000원>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만성 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 요통, 좌골신경통, 목의통증, 만성두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오십근, 생리통, 수족냉증, 심장병, 위장병, 간장병, 비만, 불면증, 고혈압, 안압다라, 허리굴은보, 만성피로, 발기불능 등을 스스로 치료하는 순번법과 발명법이 제시되어 있다.」

주말 무료체험 교실 운영 www.chgg.co.kr

-적구조정운동법, 오장육부 후, 지유법, 통증애소법, 비만감량법등을 무료로 가르쳐드립니다. (선착순 20명만) T. 02-3436-3206

* 책신청방법 : 아래계좌로 우송료 2000원을 입금시키고 전화주시면 책(396페이지)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체국 : 0136094-02-213631 주문속]

도시출판 건강한 세상, 책신청 전화: 1544-3246
홍보관 운영하실분, 즉석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발명특허 받은 의료용구 T. 02-3436-3207

무료체험실 부산 525-4849, 제주 712-9001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전류·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약통,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 합니다. 수혈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의 수맥·지자기·지전류 유류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살바로 치매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유대용 신개발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재물 생산·연구에 힘쓰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장성정 재물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들에게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반달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애용승복 직원일동 -

<p>●역삼, 조끼, 바지 W160,000</p>	<p>●행랑, 바지 W160,000</p>	<p>●우투박 W140,000</p>	<p>●W60,000</p>
◆모직(숄 50%) ◆광택 ◆순면(무늬없는 면류)			
<p>●구림이 없고 색택이 용이한 재질 A. W130,000 B. W160,000</p>	<p>●화 W160,000</p>	<p>●모직 W160,000</p>	
<p>●미끈모양 W20,000 ~ 35,000원</p>	<p>●지리닝</p>	<p>●플루</p>	

해동승복 대구 고석역에일 2층 동양방재정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중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 안내
▶기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강의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장소 : 본 연수원 ▶지도교수 : 金哲을 박사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 / 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